

/SPORTS CENTRE ATLAS

ARCHITECT: PHILIPPE YOON-SEUX + KYUNGLAN YOON-SEUX



대지위치 프랑스 파리 시 19구 면적 1,300m² 내부마감 인조 대마석(Resine Polymere, Hi-MACS) 설계, 감리 Yoonseux Architects 설비, 구조 ETHA 벌주처 파리시 편집디자인 신민기 취재 이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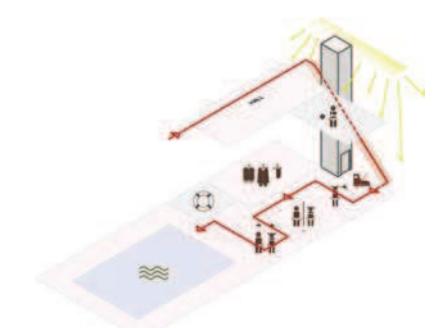
파리시는 1970년대 설치된 아틀라스 스포츠센터의 노후화된 상태를 검진하고 시설의 기능향상, 공간의 모던화, 내부동선의 재정리를 기본으로 한 리모델링을 하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내벽들을 허물고 장애인 편의법을 적용하여 내부공간을 재정비하였는데 출과 직원실/양호실, 체육관(리모델링에서 제외된 영역)이 위치한 1층과 수영장과 탈의실이 위치한 지하층은 승강기의 불륨을 축으로 연결되어있다. 출로 진입한 동선은 승강기를 감싸며 계단으로 유도되며 깊게 들어진 천장조명은 동선의 방향성을 한층 강조한다. 아랫층에 다다르며 막대뜨리게 되는 살빛 칸막이벽은 면발 영역을 표시/한정하고 열개 칼리필름처리된 거울벽은 구역(zone)의 팽창효과를 준다.

면적상의 협소함, 조망의 부재등 어찌할 수 없는 불가변적 기준성이 주는 불편함을 재료상의 부각으로 인해 실현되는 유회성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사용자의 몸과 재료간의 감각적 소통(시각/촉각/청각)을 통해 새로운 공간체험을 하는 장소를 의도했으며 특히나 수영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자의 노출된 피부를 통한 촉각적 감흥이란 놓쳐선 안되는 주제라고 간주했다. 인조대리석(Resine Polymere)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주요 재료인데 멀티면 변형으로 제조된 벽체와 반구들을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사워실 바닥위의 요철을 발로 밟을때 그 매끈함과 불륨같은 촉각적 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표면의 기복과 함께 조밀하게 타공처리된 인조대리석 벽체는 천장의 방음판과 함께 (음의)반향제한을 극복하여 청각상의 포근함을 자아낸다. 게다가 접합부소멸용접처리로 군일하고도 연속된 표면을 만들고 완벽한 방수벽체를 형성한다. 비틀기, 부풀리기, 연마, 타공, 모노블록화 등 인조대리석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강성과 유연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공간만들기란 이번 아틀라스 수영장 프로젝트에 있어 의미있는 실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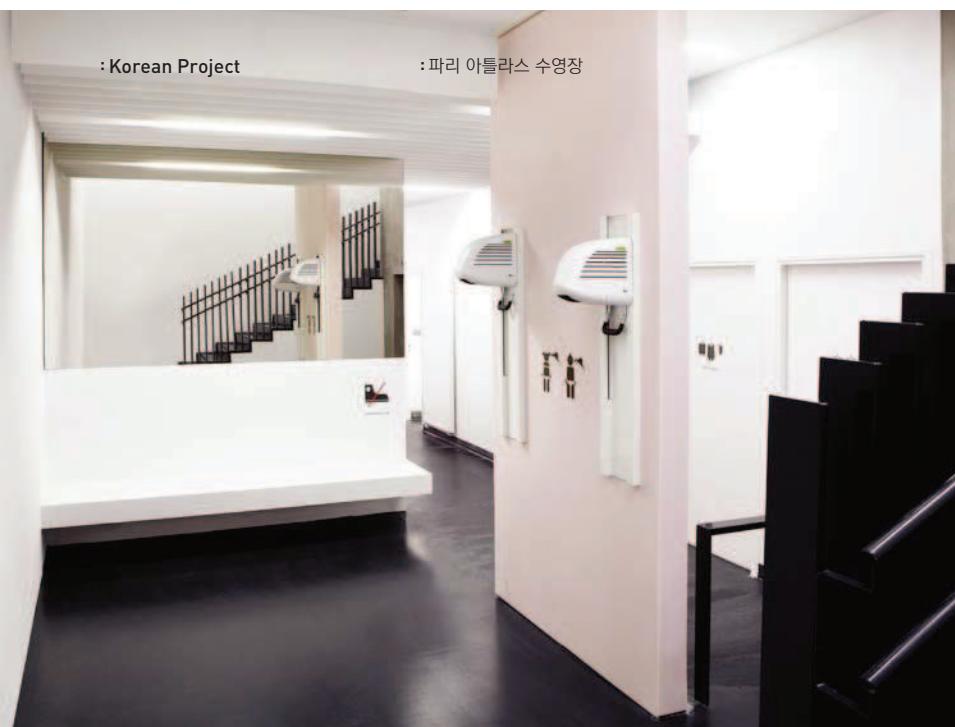
글, 자료 제공: 윤경란(Kyunglan YOON-SEUX)

필립 윤스(Philippe YOON-SEUX)_ YOONSEUXarchitectes Ecole d' architecture de Paris Belleville졸업과 프랑스건축가 협회(D.P.L.G.) 취득후 P. Louis Faloci Architecte, ADP(Aeroports de Paris, Paul Andreu) 실무를 거쳤다. 현재 YOONSEUXarchitectes 를 이끌고 있으며 주요 작업으로는 파리7대학 술선정원, 폐리유치원, 프레베르 유치원, 조에스 학교, 파리 5대학 악학연구실 등이 있다.

경란 윤스(Kyunglan YOON-SEUX), YOONSEUXarchitectes 한양대학교 건축학 학사, Ecole d' architecture de Paris Belleville 졸업과 프랑스건축가 협회(D.P.L.G.) 취득했다. P. Louis Faloci Architecte 실무를 거쳐 현재 필립 윤스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엑소노미트릭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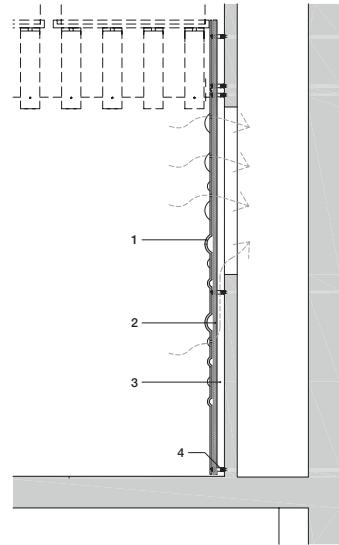


1 접합부수열 용접 처리한 인조대리석(HI-MACS)

2 실리카 부직포 에어젤 타입의 소수성 춤음재

3 알루미늄 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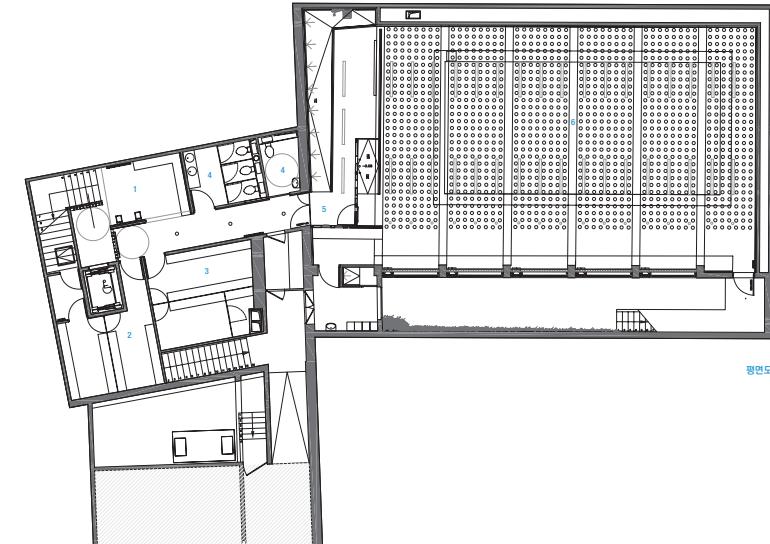
4 알루미늄 고정 베개



단면 상세도



1 출입구
2 레커룸(여자)
3 레커룸(남자)
4 화장실
5 전실
6 수영장



평면도

